

국회 힘겹게 개회…한국당 자리는 ‘텅텅’

한국당 반발…의사일정 합의 못해

6월 임시국회 반쪽 출발

민주 “모든 상임위 가동”

문 의장 “총리 시정연설 진행”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소집 요구로 20일 6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점 휴업’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일단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정문화 개최 여부가 쟁점이다.

문화상 국회의장이 경제정문화 대신 토론회 형식의 경제원탁회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실정 프레임’을 의도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한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가동에 나서면서 자유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사법특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는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보고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압박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임위와 특위를 풀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재위 등 위원장을 맡은 8개 상임위와 특위를 중심으로 한국당 없이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위원장의 개회 거부 시 사회권을 가져와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우선 당장 열 수 있는 상임위와 특위를 신속히 가동해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한국당

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추진 하면서 여의지 않으면 주말까지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이틀째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리기’에 집중했다. 특히 경제실정 청문회를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내건 한국당은 추경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청문회나 문화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오는 24일까지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없으면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는 문 의장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여당의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잡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하게 한다면 더 이상 모든 국회 분회의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상호 양보를 거듭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 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조건 없이 등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전체 의사일정 논의에 참여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국조하자”

한국당·바른미래, 검찰 기소 놓고 파상공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이틀째 삽자포화를 퍼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라고 보도되지만,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태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여전히 부실수사와 편파 수사의 의혹이 남아 있어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 차명도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것은 상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최초 보도됐을 때

‘검찰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하더니, 어제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의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흐지부지됐던 ‘손혜원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못 들었다”며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만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고소 취하하려면 선진화법 폐기해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 등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하 여부와 관련, “현 시점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면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한국당과 충돌했고,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약 30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정문화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경제 실정이나 국가 부채 논란과 관련한 프레임 공세”라며 “애초 합의를 위

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도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수정 제안한 ‘경제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경제 실정과 국가 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 협상 도중 청와대에서 대야 강경 발언이 잇따라 나온 데 대해 “서로 독립적으로 정치 행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존의 정치를 위해 진보는 더 유연해져야 하고, 보수는 더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며 “저부터 공존의 정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야권 “北 어선 남하…국방장관 책임져야”

한국당·바른미래·평화당, 삼척 정박 비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19일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하면서 해상·해안 감시망이 통째로 뚫렸다는 논란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군 당국이 해상 경계망을 허술하게 관리한 데다, 북한 어선의 귀순 의사 등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은폐하려 했으며 국회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해군·해경·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렸다. 어선이 었기에 망정이지 북한 간첩선이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으로 복구하고, 9·19 군사합의는 무효화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북한 어선 정박을 보면 북한과 성급한 합의는 안보 역량을 약화하고,

장비와 기술만으로는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났으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경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군 당국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은폐를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나라 영토에서 ‘북에서 왔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북한 주민을 보면 군대는 허수아비고 벌써 민간교류 물꼬라도 트인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며 “군과 해경은 국민 앞에 거짓말로 일관하며 상황을 은폐하고 조작하기에 급급했다. 정작 고장 난 것은 북한 어선의 기관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정신 상태였다. 세상에 이런 당나라 군대가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의당, 19~20일 당대표 후보 등록

내달 13일 새 대표 선출

정의당은 19일과 20일 이틀간 차기 당 대표 경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후보등록 첫날인 19일 정의당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일찍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미 출마의사를 밝힌 양경규 전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 당권 경

쟁은 심 의원과 양 전 부위원장 간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은 같은 기간 부대표 후보자에 대한 등록도 함께 받는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0일 저녁 추첨을 통해 경선 시 사용할 번호를 부여받을 예정이며,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순회유세에 돌입한다.

정의당은 내달 8~13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 투표 마감 당일 새 대표를 선출한다.

/연합뉴스

민주 전남도당 “인물 찾습니다”

21일부터 ‘민주정치 아카데미’ 1기 모집 … 신인 발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신인 발굴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정치 아카데미’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민주정치 아카데미는 지역 현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정치·경제인들과의 다양한 교류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신인들의 톨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당 평가다.

민주당이 아카데미 참여자들에게 10% 가량의 교육연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도 알려지면서 총선과 지방선거 때면 참여하려는 정치 신인들로 북적

인다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며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정책(문병주 민주당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박용진 국회의원)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박광은 국회의원) ▲남북교류평화협력시대 민주당의 역할(우원식 국회의원) ▲전남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방안(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관광으로 먹고사는 전남(김영미 동신대 교수) ▲인구절벽 사회, 복지국가의 방향(박민서 목포대 총장)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약산면 독암리 청정바닷가 집 산 1377㎡ 분할가능 1억3천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방 좋은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완도군 완도를 망설리 도로점 산 자연녹지 3306㎡ 교환가능 8천만원
-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입구 땅 1537㎡ 식당 82㎡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밀증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신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카페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 건물

- 순천시 낙안민속마을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 건평 1207㎡ 원룸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 물건

- 강진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근거리 소형아파트 적합 19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33억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윤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식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정완벽 팬션좋은 7억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전국야

▶ 바로 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윤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